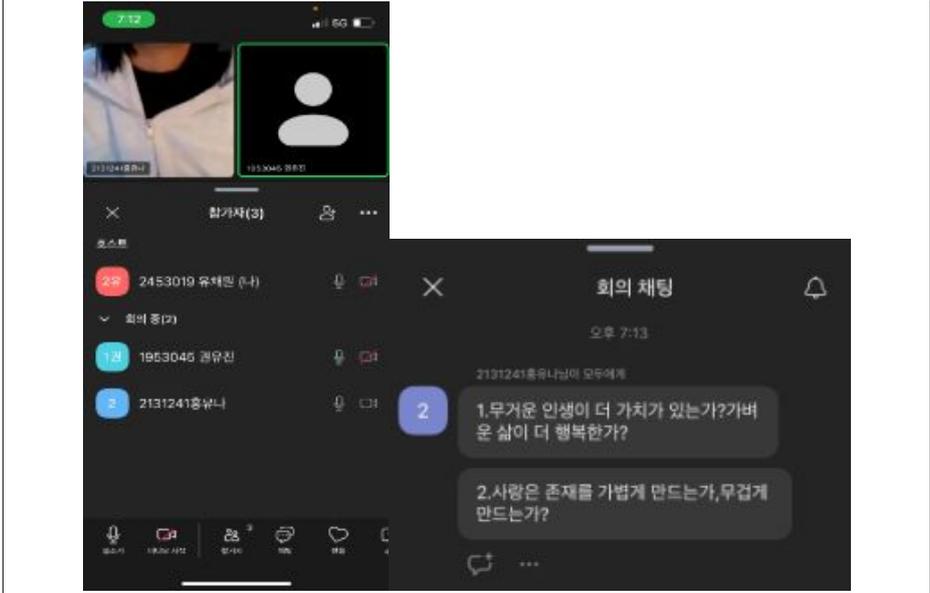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팀명

	일시	3 월 27 일 11 : 00 장소명 우촌관 접견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유채원 (2453019)	X
		권유진 (1953045)	O
		홍유나 (2131241)	O
		이소라 (2531213)	O
	진도	도서명: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진도페이지: p. 7 ~ p. 67
1주차	토론 내용		
		[좌측부터 홍유나, 이소라, 권유진]	
		<p>※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p> <p>교수님과 인사하고 책 내용 관련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p> <p>각자가 생각하는 사랑의 의미와 사랑이 끼치는 영향을 얘기해봤구요. 테레자와 토마시를 두고 책 속에서 말하는 가벼움과 무거움이 각 등장인물에게 왜 어떻게 생기는지 의견 나눠봤습니다. 교수님께서 토마시의 바람기를 두고 과거 역사에서 일어난 일부다처제 사례를 말씀해주셨구요 관련 예시로 옥씨부인전 말씀하셨습니다. 또 존재의 가벼움을 두고 현대 사회에서 결혼을 꺼려하는 이유를 함께 생각하며 의견 나눴습니다. 책 관련 작품으로 프라하의 봄을 추천해주셨고 토론 활동 끝내고 함께 식사 후 자리 마무리 했습니다.</p> <p>홍유나: 토마시의 '가벼운' 삶이 테레사의 등장으로 어떻게 변화하는가? 사랑과 책임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p> <p>이소라: 저자는 한 번뿐인 삶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그들"처럼 가볍다고 보고, 영원히 반복된다면 무게로 바뀔 것이라고 상상합니다.</p> <p>권유진: "영혼과 육체"의 이중적 구도는 인물들의 내면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특히 테레사와 사비나의 결핍과 방탕은 어떻게 대비되는가?</p>	

일시	5 월 3 일 18 : 00 장소명 Zoom 회의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유채원 (2453019)	O
	권유진 (1953045)	O
	홍유나 (2131241)	O
	이소라 (2531213)	X
진도	도서명: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진도페이지: p. 68 ~ p. 213



2주차

토론 내용

[좌측부터 유채원, 권유진, 홍유나]

주제를 두가지로 나눠서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유채원: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난 뒤, 삶의 무게와 가벼움은 단순히 어느 쪽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레자는 무거운 사랑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 했지만 그 무게에 고통을 겪었고, 프란츠는 이상적인 무게를 좇다가 결국 허망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반대로 사비나는 가벼움을 택했지만, 그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꼭 무거운 인생이 더 가치 있다거나, 가벼운 삶이 더 행복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이 무겁든 가볍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존재는 본질적으로 참을 수 없이 가볍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권유진: 삶에 다가오는 일들에 있어 무거움과 가벼움을 느끼는 것은 개인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문제가 있어도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과 가볍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가 있듯이 각자의 삶이 방향 하는 가치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비나와 신분 상승의 목표를 둔 테레자도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직면하는 문제, 어쩔 수 없이 감정이 끌려가는 순간에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삶의 기조에 따라 행동합니다.

우리 또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기조를 항상 내면에 바로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거운 인생이든, 가벼운 삶이든 무게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고 매 순간의 선택에 가치가 빛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유나: 삶을 사는데 있어서 인생의 무게를 무겁게, 가볍게 두는 것은 개개인이 살아온 환경과 가치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책을 읽고 알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해결할때 이러한 가치의 환경에서 배운 경험이 작용

3주차	일시	5 월 27 일 14 : 00 장소명 상상베이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유채원 (2453019)	O
		홍유나 (2131241)	O
		권유진 (1953045)	X
		이소라 (2531213)	X
진도	도서명: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진도페이지: p. 214 ~ p. 300	
토론 내용	<div data-bbox="523 607 1453 1128" data-label="Image"> </div> <p>[좌측부터 유채원, 홍유나]</p> <p>※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 유채원: “스탈린 아들 야코프”의 죽음에서, 그는 기저귀에서 쏟아진 오물을 두고 자살합니다. 이 장면이 ‘존재의 무게’를 상징한다고 느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는 ‘배변’이라는 자연의 요소를 통해, 쿠지키치적 키치(인위적 이상주의의 포장에 대한 거부)가 선명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비나는 왜 ‘키치’를 증오하는가? 미국 체류 이후의 경험은 그녀의 자유관에 어떤 변화를 주었나? 키치와 ‘진정한 자아’ 사이의 유의미한 대립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홍유나: 사비나의 삶과 키치 전쟁은 그녀가 정치적·사회적 이상이나 대중적 감동에 쉽게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드러납니다. 특히 미국에서 그림 전시회 후 느끼는 공허함은,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실상은 삶의 표피만을 강조한 ‘키치’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주었어요. 정치적 이상(스탈린, 공산주의, 미국의 자유 등)과 개인 존재의 간극은 인물들, 특히 사비나와 야코프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는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p>		

4주차	일시	6 월 5 일 11 : 00 장소명 더베이크 카페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유채원 (2453019)	O
		홍유나 (2131241)	O
		권유진 (1953045)	X
		이소라 (2531213)	X
진도	도서명: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진도페이지: p. 301 ~ p. 463	
토론 내용	 <p>[좌측부터 홍유나, 유채원]</p> <p>※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p> <p>교수님 질문: “사랑은 변하는가? 마지막은 비극적인 결말인가?” 이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이 펼쳐졌습니다.</p> <p>유채원: 토마시가 처음엔 도망치려 했다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존재이고 싶었고, 테레사에게 마음이 끌리면서도 무거워졌습니다. 이때 저는 사랑이라는 게 단순히 ‘좋아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대의 상처까지 함께 짊어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끌어안게 되는 경험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책의 후반부에 그들이 도시를 떠나 시골로 가서 조용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거기서 토마시가 결국 느끼는 건 어떤 ‘편안함’이 아니라, 무게 속에서 오는 존재의 안도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p> <p>홍유나: 많은 사람들이 테레사와 토마시의 관계를 두고 ‘무게를 견뎌낸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느꼈어요. 오히려 그들의 관계 속에는 가벼움과 자유에 대한 깊은 갈망이 늘 공존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토마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를 추구한 인물이에요. 수많은 여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사랑’보다는 ‘거리를 유지한 애정’을 지향합니다. 그는 집착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으려 해요. 많은 이들이 이를 ‘책임감 없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사랑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비나. 그녀 역시 ‘무게’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모든 것들(국가, 이념, 심지어 전통적인 사랑의 개념마저도) 거부합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떠나고, 움직이고,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 있어 ‘사랑을 지키는 방식’이었던 거죠.</p>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활동 후기	1	유채원 (2453019)	저는 평소에 감정을 말로 설명하는 걸 어려워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느끼기만 하고 흘려보냈던 감정들이 언어로 표현되는 걸 보고 놀랐어요. 예를 들어 ‘가벼움’이란 말 하나에 이렇게 많은 뜻이 들어있을 줄 몰랐습니다. 사랑도 그렇고, 욕망도 그렇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조차도 철학이 될 수 있다는 게 새로웠습니다. 독서클럽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들 덕분에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해왔는지’를 조금씩 정리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책을 거울처럼 삼아 나를 보는 경험이었어요.
	2	권유진 (1953045)	저는 지금껏 사랑은 그냥 ‘느끼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왔는데, 이 책은 사랑이 얼마나 복잡하고, 때론 잔인하며, 무엇보다 ‘무게’를 가진 것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토마시와 테레사의 삶은 낭만적이지 않아요. 현실적이고 때론 지쳐 보여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안에서 ‘진짜 사랑’이 느껴졌어요. 이 책을 읽고 나니, 앞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고통까지도 함께 품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홍유나 (2131241)	처음엔 제목부터 너무 철학적이라 조금 거부감이 들었어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말도, 토마시의 행동도 이해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토론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책은 저를 쉽게 위로하지 않고 도리어 끝없이 불편하게 만들고, 질문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을까?’, ‘내 삶은 가볍나 무겁나?’라는 질문이 독서 내내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테레사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저 자신이 한 번도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내 감정과 욕망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4	이소라 (학번)	토마시, 테레사, 사비나, 프란츠... 이들의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철학이 무슨 고리타분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겪는 감정과 선택 안에 있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키치’라는 개념이 특히 와닿았습니다. ‘진심 없는 감동’, ‘의무적인 감정 표현’ 같은 걸 생각하면서, 내 삶에도 키치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되돌아봤습니다. 이제는 뭔가를 좋아하거나 선택할 때, 그게 진짜 내 의지인지, 아니면 익숙한 감동에 끌린 건지 더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5		